

유럽연합, 단일 특허법 제정키로

유럽연합(EU)이 30년 만에 단일 특허법을 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단일안에 의해 특허권을 인정받으면 EU 전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국경 없는 유럽 단일시장을 위해 개별적 특허 서비스를 폐지하고 단일 특허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연구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일 특허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현재 15개국에서 내년 25개국으로 확대될 EU 전역에서 하나의 특허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 특허를 위한 특허법원은 2010년 룩셈부르크에 설립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각국 법원이 특허권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EU 당국은 특허 등록비용으로 25만유로(약 27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여러 국가들에 일일이 특허를 신청하는 비용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EU측 주장이다.

그러나 특허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단일안의 첫 3페이지를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번역료도 부담해야 한다. 단일 특허법은 이달 말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서 공식 승인받을 예정이다.

중국 화웨이 '시스코 지재산권 침해 안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시스코에게 고소당한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반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화웨이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라우터 내장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복제 등 지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시스코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화웨이는 오히려 시스코가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활동을 방해하며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반박문에서 '시스코가 화웨이와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시스코는 화웨이의 활동 및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스코가 제기한 소송 역시 라우터 시장에서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시스코는 지난 1월에 화웨이를 라우터의 핵심 부분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문서의 복제 혐의를 들어 재산권 침해로 기소했으며 화웨이는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 출하를 중단하고, 고객 테스트용으로 배포했던 대다수의 장비를 회수한 바 있다.

중국·동남아 불법유통으로 수출부진 등 피해 극심

중국과 동남아에서 인기 높은 한국과 일본제품의 상표나 겉모양을 그대로 베끼고 모조 상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구두약의 대명사인 '말표 구두약' 생산업체인 말표산업이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아주협력과 관계자는 '말표산업은 1998년부터 베트남에 진출, 연간 수백만 달러의 구두약을 판매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나 2000년 베트남업체가 '말표 구두약' 상표를 현지에서 먼저 등록하는 바람에 소송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베트남 법원이 말표산업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비용은 물론 수출부진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해외 진출 때는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먼저 출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존슨앤존슨, P&G, 일본 마쓰시타 등 중국에 진출한 유명 외국회사들이 모조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존슨 앤 존슨은 중국에서 필수 용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99년 이후 가짜상품이 나타나면서 8,000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P&G 역시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15%에 달하고 있으나 가짜 상품으로 매년 1억5,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 마쓰시타도 중국내 히트상품인 '애처호(愛妻號)' 세탁기의 모조품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총 2,300만 위안의 피해를 입었다.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만화로 보는 발명 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⑥

용도를 바꾸어 보자